

# 부산시, 범어사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속도

### 금정산·범어사 상생발전 협약 국내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기대

### 삼국유사·금정산성·범어사 등 63점 국가지정 문화자원 위치

부산시는 26일 범어사에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정오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종인 금정산시민추진본부 대표가 참석했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2006년에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14년에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 염원이 본격화됐다.

이에 시는 2019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으나 이후 범어사, 경남도, 양산시, 부산 6개 자치구,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심수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범어사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전향적인 입장을 표함으로써 국립공원 지정에 속도감이 더해지고 있다.

시와 범어사 등 관계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범어사의 수행환경 보전과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 발전을 위해 ▲부산의 진산(眞山)인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호 협력 ▲범어사의 수행 환경 보전과 산불 예방을 위한 숲길 및 탐방로 개설 지원 ▲범어사와 그 주변 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등 상호 공동 노력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금정산이 2021년 9월 환경부 타당성 조사 결과 전국 국립공원 최상위 수준의 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도심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정산에는 삼국유사, 금정산성, 범어사 등나무 군락 등 63점의 국가

지정 문화자원 등이 있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주민 자긍심 고취,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금정산과 범어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과 사찰로 자리매김해 부산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림으로써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부산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두가 끝까지 뜻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지난 25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디아이지에어가스㈜와 여수국가산단 내 수소, 액화탄산 등 제조시설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여수시 수소 제조시설 신설 투자협약

여수시는 전남도, 디아이지에어가스㈜와 여수국가산단 내 수소, 액화탄산 등 제조시설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최정기 여수시부시장, 오규석 디아이지에어가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디아이지에어가스㈜는 오는 2026년까지 여수국가산단에 2042억 원을 투자해 연간 수소 6천 톤 및 액화탄산 16만 톤 규모 생산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인접 기업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활용해 초고순도 수소·액화탄산을 생산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크게 줄이고 산단 기업체 및 국내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또,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을 비쳐 건설 및 협력사 등 대규모 직간접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중부내륙선 2단계 사업을 앞두고 문을 연 문경역.

## 충주~문경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30일 판교행 KTX 열차 첫 운행

### 경북도, 도민 수도권 접근 개선

27일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가 개통되면서 도민들의 수도권 접근성과 수도권 관광객의 경북도 방문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경북도는 이날 문경역 광장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임이자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선(충주~문경) 개통식을 개최했다.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은 총연장 93.2km로, 총사업비 2조5482억원이 투입돼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되었는데, 첫 운행 열차는 오는 30일 오전 6시 25분 문경에서 판교로 향하는 KTX-이음(10개 역) 상행편으로, 앞으로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한다.

1단계 이천(부활)~충주구간(54.0km)은 2021년 12월 개통해 운행 중이며, 2단계 충주~문경구간(39.2km)이 완전 개통되면서 문경에서 판교까지 KTX-이음(EMU260) 운

행으로 1시간30분대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수서~광주선(북북선 19.4km),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중인 문경~김천선(69.8km),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7.9km) 등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서에서 문경, 상주, 김천을 거쳐 거제까지 남북 중심지를 종단하는 내륙 간선철도망이 완성된다.

경북도는 문경시,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철도 운행 계획에 맞춘 버스노선 개편 등 철도 접근성 제고와 문경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문경새재 등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 사업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천~문경 철도를 시작으로 경북에 철도 5개 노선이 올해 말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철도교통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지역 신거점화를 이뤄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이루고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경남도, 근로자 기숙사건립에 24억 확보

###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곳 선정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서 밀양시, 함양군 등 신청한 2곳이 모두 선정돼 3년간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을 통한 내외국인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으로 원활한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내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말에 앞당겨 시행한 공모사업이며 전국 7개소 선정에 경남도가 2개소를 유지했다.

경남도와 밀양시, 함양군은 공모 선정을 위해 신청 전부터 경남연구원,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의 전문

평가 컨설팅과 현장 평가를 거쳤다. 이어 최종적으로 부지 확보 상황, 인허가 가능 여부,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 이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 공모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에 선정된 밀양시는 24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660㎡, 14실 56명 규모, 함양군도 24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034㎡, 28실 56명을 수용할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다. 내년에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 기획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거창군이 2022년 도내 처음으로 선정돼 11월 2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신안군, 2024 전남 명예예술인 3명 지정

### 한국화 박용규·김은옥, 사진 원수철

전남 신안군은 2024년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3명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신안군 예술인은 한국화 박용규 작가(82·사진) 한국화 김은옥 작가(68), 사진 원수철 작가(72)이다.

전라남도는 문화예술로 풍요롭게 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예술인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만 50세 이상으로 해당 분야 15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 도내 10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다. 2024년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신안군 원로 예술인 3명을 포함하여 8명이 지정됐



다.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서 수여, 명예 현판 제작, 문화예술 행사 초청 및 예우 등을 받게 된다.

신안군 원로작가 우암 박용규 화백은 한국화의 거장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의 작품은 1004점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 상설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초현 김은옥 작가는 신안미술협회와 신안예총을 조직하여 신안군 문화 예술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팝업 개최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상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팝업스토어'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연결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 소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청송군 도로 제설 종합대책 마련

청송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설,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군은 선제적으로 제설제(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모래, 소금 등)를 확보하여 상습결빙구간 등 취약구간 16노선에 방방사 12,500포대를 배치하였으며, 염수분사시설 3개소(덕천지구, 피나무재, 천천지구)와 제설작업에 투입될 장비(제설차량 15대, 트랙터 50대, 제설삽날, 모래살포기 등)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제설작업에 임할 사전준비를 완료하였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미국립보건원에 팬데믹 봉쇄 회의론자 지명 /사진 뉴시스  
▲골드만삭스 "트럼프 관세 인상 시 미 인플레이션 1% 상승"

▲시진핑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정의...권리 회복지" /사진 뉴시스  
▲中 "세계 첫 자율 주행 위성' 가오징-2 03과 가오징-2 04 발사"



▲이시바 日총리, 한일의원연맹과 면담...사도광산 추도식 등 언급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사상 최대 규모' 러시아 무인기 공격에 곳곳 정전